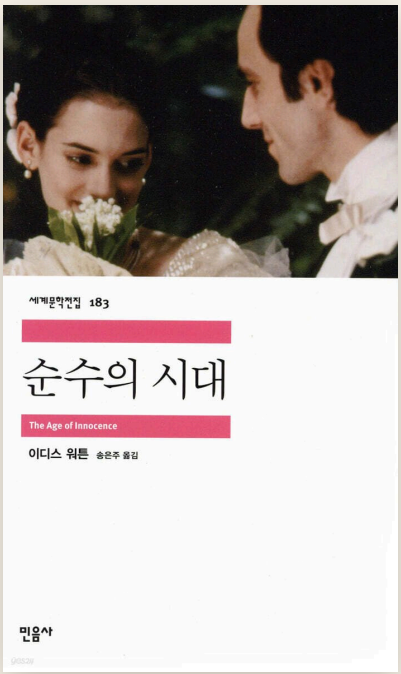


오프모임 · 2025년 5월 10일 · 12명

순수의 시대

순수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를 들고 봄날 오후에 직접 만났습니다.
1870년대 뉴욕 상류층의 사랑과 결혼을 두고, 메이와 엘렌, 그리고 끝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아처를 자리를 옮겨 가며 세 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메이	순진한 아내일까, 모든 걸 얻어 낸 전략가일까
엘렌	사랑보다 자유를 택했을까
결혼	사랑만으로는 하지 않는 것
순수	계산하지 않던 시절의 마음, 혹은 환경 따라 변하는 것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로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오후, 오프모임에서 모였습니다. 오후 두 시에 시작한 이야기는 자리를 한 번 옮겨 가며 세 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소설을 읽지 않으면 어디 가서 꺼낼 수도 없는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라 이야깃거리가 끝이 없었어요.

메이 — 순진한 아내일까, 전략가일까

가장 뜨거웠던 인물은 메이였습니다. 처음엔 순진하고 착한 약혼녀로 보였는데, 다 읽고 나니 "메이가 너무 무섭다"는 말이 나왔어요. 약혼을 서둘러 결혼을 앞당기고, 가족과 사교계의 힘을 모아 결국 원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략가라고 부르기엔 그렇게 계산적이지는 않다. 다만 그 사회에서 자란 사람답게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메이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 그 뒤에는 늘 가문과 사회가 함께 있었다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엘렌 — 사랑보다 자유를 택했을까

엘렌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엘렌은 아처에 대한 사랑보다 자유를 택한 것 같다"는 쪽과 "정말 자유를 원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쪽. 자유를 원하는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데서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사회의 제약과 따가운 시선이 평생 따라다닐 걸 알고, 엘렌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엘렌을 두고 "나를 닮은 아이"라고 말하는 할머니가 가장 인상 깊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엘렌이 마음만 먹었다면 아처는 넘어갔을 거라는 데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엘렌은 끝내 선을 지켰지요. "엘렌이 선을 지켜 줬기 때문에 메이도 성숙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오가는 마음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이 아니라는 이야기, 같은 시대 『안나 카레니나』와 나라만 바뀌었지 비슷한 풍경이라는 이야기도 이어졌어요. 만약 세 사람이 친척으로 얽혀 있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상상도 해 보았습니다.

아처 —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미없는 인생

뉴랜드 아처는 유럽을 동경하고 예술을 아는, 그 시대 미국 상류층 남성의 전형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부러워할 자리에 있지만, "메이와 함께라면 늙을 때까지 재미없게 살 것 같다"는 그의 독백이 안타까웠다는 이야기. 마지막 장면에서 끝내 올라가지 않은 선택도 결국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쭉 가는 삶의 연장이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어떨까 하는 질문도 던져졌습니다. 젊어서 못 해 본 것을 다 벗어 던지고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름답지 않을까.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지 않는다

1870년대 뉴욕의 결혼은 사랑보다 가문과 신분, 사회의 시선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고 얼마나 다를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은 여전히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고, 유명한 사람들이 연애를 숨기는 것도 그 시대 상류 사회와 닮았다는 거예요. 인터넷도 없던 닫힌 사회에서 신분의 벽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거라는 이야기, 사랑에는 결국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남이 보는 내가 중요한가,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가." 아처와 엘렌이 각자 내린 선택을 보며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순수'는 누구를 위한 말일까

제목의 '순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순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해석,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았던 20대의 그 감정"이 순수였다는 고백이 나란히 놓였어요. 조건을 따지는 결혼과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사랑,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를 배운 시간이었다는 소감도 있었습니다.

이 소설이 지금 쓰였다면 어땠을까요. 아처가 자기 아이들은 자기와 다를 거라고 말했듯,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더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1870년대 뉴욕을 알게 되다

"몰랐던 시대의 뉴욕 상류층 문화를 알게 되어 지적으로 자란 느낌"이라는 소감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오페라가 지금의 뮤지컬만큼 인기였다는 것, 1차 대전 전의 풍요로운 벨 에포크를 엿볼 수 있었다는 것, 작가가 인물 이름에 심리를 담아 지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독서모임이 좋다는 말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이날 진행 자료

방장이 준비한 슬라이드 7장입니다. 내용이 헷갈리면 여기서 먼저 보세요.



1 / 7



2 / 7

사랑의 동기와 진정성

- 당신의 사랑은 타인의 시선과 조건에서 자유로운가?
- 사회적 지위, 명예, 안정감 같은 이유로 포장된 것인가?



사랑의 순수함 vs 책임감의 순수함

- 뉴런이 엘렌과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배신이 아니라, 책임의 형태로 표현된 또 다른 사랑(?)
- 욕망을 따르는 것이 더 순수한가, 아니면 의무를 지키는 것이 더 순수한가?

엘렌과 뉴랜드이 서로의 감정

- 그렇지만 당신을 사랑했소
- 그녀의 팔에 안고 젖은 꽃 같은 얼굴에 입을 맞추는 순간, 그들의 모든 헛된 공포가 햇살 속으로 나선 유령들처럼 사그라졌다.

02

사랑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시대'와 충돌

뉴랜드 아처와 엘렌 올렌스카의 사랑

'타이밍'의 연속적인 실패



03

뉴랜드의 타이밍

- 엘렌을 처음 사랑하게 되었을 때
- 엘렌이 뉴욕을 떠나기 직전
- 이혼을 결심하고 메이에게 말하려는 순간
- 마지막 파리 방문

04



"전략가 메이" 메이의 선택은 순수했는가?

저 때문에 그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고 제가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어요. 남의 불행을 딛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겠어요?

메이의 선택은 순수했는가?
이혼을 막기 위해 가족을 움직이는 방식
뉴랜드가 이혼을 결심하려 하자, 임신을 알리는 방식 (뉴랜드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자극)

05

경계를 넘으려다 다시 물러선 존재





경계를 넘고자 했지만, 결국 사랑보다 자유

그녀의 존재 자체가 뉴욕 상류사회에 균열을 일으키는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고결해진 사랑(?)
뉴랜드와의 사랑조차도 자신을 속박하는 또 다른 틀이 될 수 있음
운명은 선택하지만, 사랑은 내려놓는 여성


생각해봅시다...
사랑의 순수성
우리는 지금 사랑을 말할 때 얼마나 용기 있고,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가?
뉴랜드 VS 메이 VS 엘렌
"가장 안타까웠던 인물은 누구였나요?
타인의 삶에 대한 책임
엘렌의 사랑은 소극적인가, 아니면 성숙한가?
이 시대의 순수
“이루어진 사랑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더 순수할 수 있을까?”
당신이 뉴랜드 아처였다면
진정한 사랑과 안정된 삶 중 어느 쪽이 더 어렵고 왜 더 간절한가요?
뉴랜드의 마지막 선택
기억 속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인가? 왜 끝까지 행동하지 않는가?

책미사에 함께하고 싶다면

주로 토요일 밤 9시, 줌에서 만나고 가끔은 직접 만납니다. 완독 못 해도,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 첫 참여는 무료, 그다음부터 모임당 5,000원입니다.

- 다음 모임과 신청: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
- 이 책의 진행 자료: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book-c91c02d3.html